

# 미원기념사업회, 설립자 주요 저서 윤문본 출간

## 민주주의 자유론 · 문화세계의 창조 · 인류사회의 재건 · 오토피아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저서 4권 윤문본 제작  
우리대학 지향점 제시  
26일 기념식서 완간 발표

미원기념사업회(사업회)가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의 주요 저서 4권의 재출간을 완료했다. 설립자 탄신 100주년에 맞춰 진행된 이번 사업은 <민주주의 자유론>(1948), <문화세계의 창조>(1951), <인류사회의 재건>(1975), <오토피아>(1979)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핸수로 8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

재출간된 4권의 책은 우리대학이 바라보는 교육과 연구의 지향점,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실천의 방향이 잘 제시되어 있다.

<민주주의 자유론>은 그 첫 번째 저서로 설립자 사상의 원형이 담겨 있는데 1948년 당시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상에서 민주주의를 논한 흔치 않은 저서다. “민주란 곧 일 반 국민 전부를 치정하는 것이지, 결코 특권자나 재벌들을 국민이라 고 부를 수 없다. 국민 전체를 위해 전체 국민의 의사로 국민의 대표자가 공복이 되어 일하는 것이 민주의 기본 이념이다”라는 책 속의 내용은 현재 시선으로 보아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대학의 교훈이 ‘학원·사상·생활의 민주화’라는 것도 첫 번째 저서에서 드러난 설립자의 철학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설립자 저서&lt;민주주의 자유론, 문화세계의 창조, 인류사회의 재건, 오토피아&gt;윤문본

교시탑에 새겨진 <문화세계의 창조>는 그대로 설립자의 두 번째 저서 제목이기도 하다. 최초 출간 연대가 1951년, 한국전쟁 당시였던 것을 감안하면 참사의 와중에서 ‘문화’를 거론했던 것부터 놀랍다. 전쟁과 파괴, 생존의 와중에서 ‘문화’는 한가롭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설립자는 책을 통해 첫 번째 저서에서 제기한 민주주의 이상과 그 구현 방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민주주의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보다 구체화한 실천의 방식으로 이해할 만하다.

세 번째 저서 <인류사회의 재건>을 통해서는 현대문명의 모순을 살피고 인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인류문명이 나아가야 할 미래사회 모습은 무엇인지 성찰한다. 최초 출간 시기인 1970년대는 냉전과 그로 인한 위기 상황이 일상화되어 있던 때다. 설립자는 냉전 시대 공포와 문명의 위기를 넘어서는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넘어선 인류사회의 지구적 연대와 협력이 유일한 방법임을 이야기하며 평화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의 하나로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대학에 평화복지대학원이 설립되고 UN과 함께 평화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이를 기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오토피아>는 인류 평화사회에 대한 소망을 담은 책이다. 오토피아란 인류가 ‘소망해야 할’ 사회를 의미한다. 설립자는 인류사회의 미래를 ‘지구공동사회’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지구공동사회는 인류가 협력함으로써 영구적인 평화세계를 구축하는 사회를 말한다. <오토피아>는 지구공동사회에 대한 철학과 실천의 길을 담았다.

설립자가 네 권의 책에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대학의 교육에서도 그대로 물어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세계평화의 구현’으로 정리되는 그의 생각은 인간의 정서와 의지를 갖춘 ‘전인적 인간’, 자유와 정의, 진리를 사랑하며 책임을 존중할 줄 아는 ‘사회적 인간’, 관용과 이해와 협동을 배우게 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민주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대학이 전인교육의 장으로서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봉사와 실천을 국내 어느 대학보다도 먼저, 그리고 힘주어 강조해온 것도 결국은 대학 설립 초기부터 이어져 온 교육 철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네 권의 윤문본은 우리대학 출판문화원이 8년에 걸쳐 제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판본이 시기적으로 최대 70년이 지난 것이라 한자식 표현이나 문장 형태의 생경함, 그리고 의미 파악의 어려움 등 현재 구성원이나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원 기념사업회는 11월 26일 평화의 전당에서 있었던 ‘설립자 탄신 100주년 및 경희학원 60주년 기념식’을 통해 윤문본 완간을 발표하고 봉정사를 통해 ‘설립자의 사상이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지구적 과업 수행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며 ‘순탄치 않을 미래를 맞이할 미래 세대에게 진취적 기상과 창의적 사색의 발판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 고려부터 조선까지, 우리나라 도자기 이야기 내 손 안의 박물관

대학박물관 최초로 제작된 ‘나도큐레이터’는 이용자가 3D 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 박물관 소장유물 선택과 배치 및 전시, 유물설명, 전시 기획 의도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큐레이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다른 이용자와 내 전시를 자유롭게 공유하며 우리 문화유산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및 이용방법

#### 1) 프로그램

- ① 온라인 도자기 교육 영상
  - ② 온라인 도자기 퍼즐 –퍼즐 사용법
  - ③ 온라인 도자기 전시실
  - ④ 온라인 나도 큐레이터
- 2) PC 및 핸드폰 기기 접속을 통한 체험 가능
- 3) 안내문 및 포스터 이미지내 링크 접속 가능

### 이용 기간 및 대상

~2021년 12월 31일까지, 남녀 노소 관심있는 누구나

### 이용 방법

PC 및 모바일 기기 접속을 통한 자유관람 및 체험 가능

### 비고

- 1) 프로그램 관련 만족도 조사 참여 요망
- 2) 문의 :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TEL : 02-961-0141, E-MAIL : khsd3050@khu.ac.kr



2021.  
07.01-12.31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